

“미래 의료 선도할 국립대병원 표준 모델 완성하겠다”

정신 전남대병원장 취임 2주년 일문일답

뇌졸중·장기이식·외상·응급 등 7대 분야 전략적 핵심 클러스터 구축
첨단 로봇수술·AI 스마트 진료 시스템 결합…호남 의료 중심축 완성

지난 2024년 1월 전남대병원 제34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정신 원장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아심 찬 병원 운영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정신 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난 2025년 거둔 가장 큰 성과를 꿇는다면.

▲가장 먼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건립 최종 확정이다. 또 호남권 유일의 제1기 '인증 연구 중심 병원' 선정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등 보건복지부의 대형 사업을 잇달아 유치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병원 중 최고 등급을 획득한 부분도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

- 새병원 건립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은 지역 필수 공

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책 사업으로, 현재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총사업비 약 9,629억원, 1,07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최초의 본원 신축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중증응급 고난도 진료를 책임지는 지역 책임 의료 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올해 새병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단계에서 단순한 건축 계획을 넘어서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 단계부터 공기 단축을 고려한 건축 계획을 병행 수립하여, 2027년 설계 착수, 2029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

- 새병원은 어떤 콘텐츠로 구축 되는가.

▲ 새병원에는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콘텐츠가 담긴다. 먼저, 7대 전문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화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디자인 진료, 연구·진료 통합 모델, ICT 기반 진료를 강화하

고 에너지 활용과 친환경 설계 지침을 반영하고,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병원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공간 구성 역시 장기적인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계획하며, 교육·연구 부문을 대폭 강화해 진료·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립대병원의 표준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 전남대병원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펼친 정책은.

▲첫째,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 의료의 완결성'이다. 지난 2025년, 의정 갈등 장기화라는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현장을 지켰다. 배후 진료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호남권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 기관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평가를 거뒀다. 둘째,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에 기반한 '미래 의료 육성 전략'이다. '2050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핵심 질환군을

정밀 타겟하기 위해 뇌졸중, 호흡기, 장기이식, 심혈관, 외상, 응급, 로봇수술 등 7대 분야를 전략적 핵심 클러스터로 선정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 클러스터와 함께 첨단 로봇수술과 AI 기반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결합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호남 의료의 중심축을 완성해 가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전남대학교병원은 새병원 건립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이 더 이상 '백 5 병원'을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 되는 완벽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진료의 질적 수준을 수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초격차 의료 서비스 실현이다. 둘째, 분원별 전문화 전략을 통한 완결적 의료 생태계 완성이다. 셋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환자 중심 케어 강화이다. 넷째, 지역 사회 소통과 신뢰 구축이다. 다섯째, 국가적 의료 혁신의 모델 수립이다. 우리 병원은 지역민에게는 안전한 필수 의료를, 의료 진에게는 미래 의료를 실현할 최적의 기반을 제공하는 병원을 만드는 목표를 향해 책임감 있게 나아가겠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심장학, 치료 넘어 ‘전 생애 심혈관 관리’로 변화할 것”

안영근 대한심장학회 신임 회장 일문일답

초고령사회 심장학 패러다임 전환
생애주기별·응급 대응 등 교육 강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심장학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질환 치료가 아닌 삶의 전 과정에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대한심장학회는 훌륭한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정책·교육을 유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히하겠다.”

최근 제69대 대한심장학회장에 취임한 안영근 신임 회장(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심장학의 나아갈 방향과 학회 운영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안 회장은 향후 대국민 심혈관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응급 대응 교육, 디지털 기반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남대병원장, 한국혈전지혈학회장, 광주전남병원협회장 등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 한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등을 맡으면서 국내 심장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안영근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제69대 대한심장학회 회장 취임 소감과 학회 운영 계획은 무엇인가.

▲ 대한심장학회가 그동안 쌓아온 학문적 성과와 회원들의 협력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소통과 신뢰의 기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안영근 신임 회장

- 급성 심근경색증과 중재시술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이뤄

왔는데, 이러한 임상·연구 경험이 학회 운영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 그동안의 임상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혁신의 목소리가 학회 안에서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선후배 연구자들의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대한심장학회가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한국 심장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한심장학회는 이미 훌륭한 임상 역량과 연구 성과를 갖춘 학회라고 생각한다. 연구·정책·교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회가 연결 고리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이러한 논의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 디지털 헬스와 정밀의학을 미래 핵심 키워드로 꼽았는데, 심장학 분야에서 이 기술들이 진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는가.

▲ 심장학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에서도 변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질환을 예측하고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학문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 다기관 임상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는데 대한심장학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여러 연구자와 기관들의 노력이 잘 모이고 이 어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협력 기반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회장으로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학회가 학문적 역할 외에도 국민 심혈관 건강 증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국민 예방·교육 측면에서 강화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학회가 학문적 역할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데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응급 대응 교육, 디지털 기반 홍보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심혈관질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심장학이 준비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심장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단순히 질환을 치료하는 학문을 넘어, 삶의 전 과정에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학회 회원들과 국민께 대한심장학회 회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 학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김동희 교수, 인공관절 치환술 5000례 달성



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며 성과를 축적했다.

현재 조선대병원 관절 분야는 몽골·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의료진이 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역 병원에서도 세계 수준의 의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의 명맥이 끊긴 분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보람”이라며 “미국 소도시 로체스터의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처럼 환경에 굽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성가를로병원, 전남 최초 인공와우이식 시행

성가를로병원이 최근 인공와우이식을 전남 최초로 시행했다. 이번 수술은 아미인후과 장기홍 과장이 집도했으며, 66세 노인성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일상 대화가 어려워지고 TV나 전화 소리를 크게 해야 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 구분이 힘들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이는 우울감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노인성 난청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 치료에는 보정기와 인공와우이식이 있다. 보정기는 소리를 증폭해 전달하는 장치로 조기 착용 시 효과가 크지만, 달팽이관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말소리 이해에 한계가 있다.

장기홍 과장은 “인공와우이식은 단순히 소리를 다시 듣게 하는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의사소통 회복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